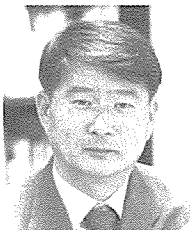


2006년 양돈산업 결산 및 농가 당부사항



정 선 현 전무
(사)대한양돈협회

1. 2006년 한국 양돈산업

2006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대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양돈현장에서는 지난 3년간의 돼지가격 호황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양돈 소모성 질환 발생이 멈추지 않아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양돈협회는 지난해에도 당면한 양돈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정 등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소모성 질환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세미나 개최, 사육단계 HACCP 사업 추진, 환경규범제정 및 농가교육 사업, 친환경 양돈업을 위한 농지내 축사 건축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 축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등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가. 돼지 사육과 농가현황

돼지 사육두수는 '04년 890만두, '05년 880만두로 소폭 감소 후 올해 현재 937만두를 기록하는 등 2003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

〈표 1〉 연도별·규모별 돼지 사육두수 및 호수

(단위 : 천두, 천호, %)

구 분	'04. 12	'05. 12	'06			증 감	
			3	6	9	전분기	전년동기
총 사육두수	8,908	8,962	9,010	9,032	9,369	337(3.7)	376(4.2)
모돈수	935	966	990	999	1,006	7(0.8)	(4.3)

났으며, 모든 두수도 100만6천두로 사상처음 100만두 이상을 넘어섰다.

2006년 9월말 현재 사육농가수는 1만1천여 농가로 지난 2004년 12월말 사육농가가 1만3천농가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2년여 사이에 2천 농가 이상 감소한 것이다. 한편, 양돈농가 1호당 사육두수는 2006년 9월 현재 818두이며, 1,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 농가의 27.1% (3,100농가)를 차지하고 사육비중은 80%인 7백4십8만두를 차지하는 등 양돈산업의 전업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돼지 도축두수 감소와 소모성 질병의 피해

〈표 2〉 돼지 도축두수 현황 (단위 : 천두)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도축두수	15,338	15,287	14,619	13,464	9,531

연간 평균 돼지도축두수는 '04년 14,619천두, '05년 13,464천두, '06년 13,000천두(예상)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사육두수가 올해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도축두수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질병 등에 의한 자돈과 육성돈의 폐사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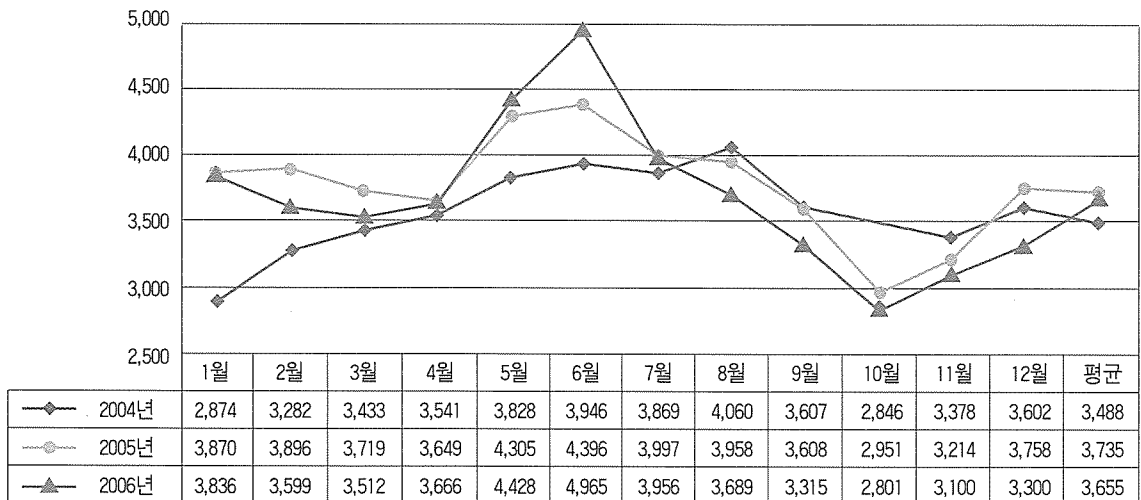
PMWS, PED, PRRS, PRDC 등 여러 가지 복합질병 등에 의한 피해는 올해 역시 양돈농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다. 질병으로 폐사피해를 입은 농장들은 그동안 고돈가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농가소득은 높지 못했다. 결국 철저한 방역과 질병없는 청정한 농장을 위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돼지 소모성 질환 방역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종돈장 위생 방역관리 요령에 PRRS를 추가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또한 소모성 질환 컨설팅 사업을 전국 482개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돼지의 소모성 질환 극복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세 유지

돼지 가격은 전년도에 이어 높은 지육가격을 나

〈표 3〉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지육가격



※ 2006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추정치임.

〈표 4〉 최근 4년간 돼지 생산비 및 가격 동향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비(100kg)	157,259	179,130	174,130	(172,470)
성돈가격(100kg)	165,500	234,000	253,000	(250,000)
자돈가격(20kg)	54,000	64,000	92,000	(92,000)

※2005년까지 자료는 농림부 자료, 2006년 자료는 추정치

타냈으나, 출하두수 감소율에 비해 가격 상승률은 저조하였고, 가격 변동 폭도 크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비육돈 산지가격이 24~25만원대를 형성하여 양돈농가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첫째로 폐사율 증가로 인한 국내 비육돈 출하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광우병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따른 대체요인이 지속되었던 원인이 크다. 올해 돼지 지육 평균가격은 3,600원/kg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에는 올해 평균보다는 낮은 3,200~3,400원/kg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해양배출 중단선언으로 분뇨자원화 대책 쏟아져

런던협약 96의정서 등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을 2012년부터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한 해였다.

이에 양돈협회에서는 지난 3월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도 지난 11월 자연순환농업 5년간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발표하여 양돈농가의 분뇨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여 2013년까지 매년 액비저장조를 600개씩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가

축분노문제 극복이 양돈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마. 성공적인 자조금 사업 추진

2004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양돈자조금제도는 2006년 10월 현재 농가거출금 40억원, 정부지원금 30억으로 농가납입률 93%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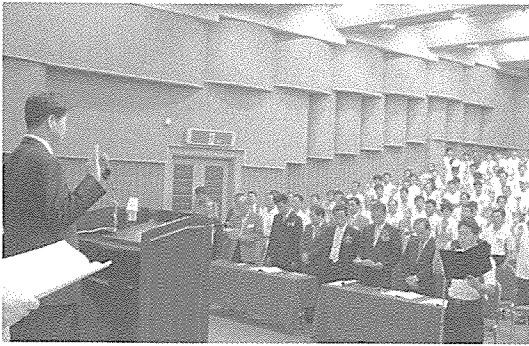
2005년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TV광고를 접한 후에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75.6%, 광고를 접한 후 삼겹살 이외의 부위가 먹고 싶었다는 의견이 77.1%로 TV광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삼겹살에 편중된 소비자의 돼지고기 소비기호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 2006년 양돈협회 주요 추진사업

가. 가축분뇨자원화 관련 법률 제정 및 양돈환경 규범 채택

양돈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공포되었으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축분뇨자원화법 제정은 평소 축산농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법 마련과 함께 경종농가와 상생하는 가축분뇨 자원화라는 방안을 강구해 자연순환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친환경 양돈산업을 구축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양돈환경



규범을 채택하고 지난 11월에는 양돈환경규범과 환경규범판을 전국의 양돈농가에 배포하여 경종농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에 앞장서고 있다.

나. 전국 순회 세미나 및 교육사업 실시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 소모성 질환 극복은 올 한해 양돈산업의 화두였다. 이에 양돈협회는 양돈선진국인 프랑스의 중돈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면서 모든 두당 22두 출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질병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양돈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국 지부 조직을 이용하여 교육 및 세미나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2세 양돈인과 여성 양돈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현장



양돈교실을 12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양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선진 양돈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네덜란드 바네벨트 대학이 운영하는 PTC+양돈학교에 10명씩 2회에 걸쳐 6일 과정으로 현장 교육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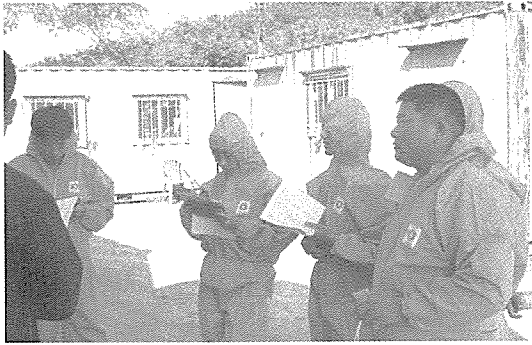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돼지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였다. 양돈협회는 올해 농림부 HACCP 보조사업 20개 농장과 자체비용으로 HACCP을 추진하는 20개 농장 등 40개 농장에 대해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농림부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내년에도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사업 및 양돈농가 상담 등을 실시하여 양돈농가가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을 받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농장의 생산성 및 경영능력 향상을 이루게 할 계획이다.

라. 양돈산업 관련 제도 개선

양돈협회는 기존의 가축전염병이 1·2종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질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 준하는 이동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꾸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가축전염병 분류를 1, 2, 3종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각기 질병의 특성에 적합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질병구분의 분화와 현실적인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PRRS 등 3종 전염병으로 세부 분류된 질병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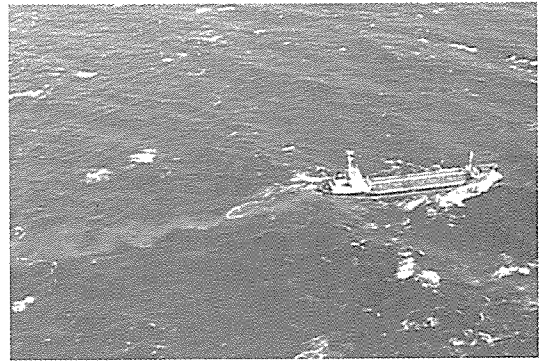
또한 양돈협회는 사료내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여 아직 규제치가 정해지지 않은 보미톡신과 제랄레논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내년에 곰팡소 독소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사 신축시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 등 계속되는 수입축산물의 압박으로 어려워지는 양돈농가를 위하여, 도축세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지내 축사신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양돈농가에 바라는 제언

양돈협회가 발표한 '한미 FTA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 관세 25%, 쇠고기 관세 40%를 완전 철폐시 1조860억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등 양돈선진국과도 FTA 협상도 기다리고 있어, 2007년은 한·미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양돈산업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



▲ 런던협약 96의정서 등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을 2012년부터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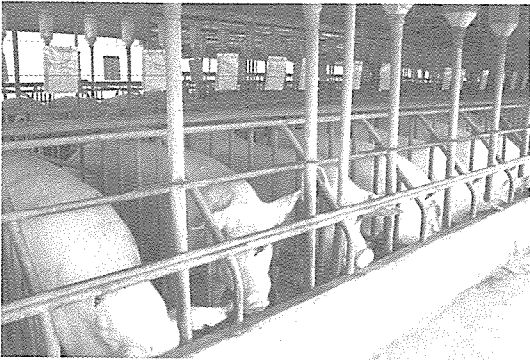
로 보인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 감소, 항생제 과다사용 보도, 양돈장 냄새 문제 등 양돈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산적해 있다.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양돈인들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자.

최근 연이은 항생제 관련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가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고품질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2005 돼지고기 소비실태 조사연구 결과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관심이 67.5%로 품질, 가격, 맛 30.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을 비교해 볼 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양돈농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양돈농가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안전한 국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에 앞에서도 언급한 친환경 축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농장 단위 HACCP 적용으로 항생제 등의 잔류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을 위한 돼지



▲ 우리 양돈농가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안전한 국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고기 생산을 해야 한다.

나. 양돈업 환경 규범 준수를 통해 환경문제 적극 개선해야

가축분뇨 처리문제, 악취로 인한 민원, 해양배출 감축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아져 양돈농가들의 설 자리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환경문제에 규제와 감시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2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점은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이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장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농장 만들기, 악취 발생 저감, 생산성 향상과 함께 해양배출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실



▲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양돈장 환경개선과 함께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 철저,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절감 등 기술적 노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천해야 할 것이다.

다. 생산성 향상 등 양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자.

지난해 사육두수는 사상최대로 증가한 반면 도축두수는 지속 감소해 질병 등에 의한 피해가 양돈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밀집사육 금지 등 양돈장 환경개선과 함께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 철저,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절감 등 기술적 노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양돈산업의 외형은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우리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가 뭉치지 않으면 양돈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전국 양돈농가를 하나로 묶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당면한 양돈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양돈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나도 위생관리 믿고찾는 우리돈육